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보랏빛·푸른빛 겹겹이... '몽환적'

연속에서 피어나는 상상력 은유적으로 담아내

자연과 영화가 어우러지는 초여름 영화 축제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영화제를 알리는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열리는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스터는 보랏빛과 짙은 푸른빛이 겹겹이 번지는 몽환적인 색감과 빛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부드럽게 확산되는 빛의 형상은 숲속의 공기와 여름 사이를 유영하는 듯한 분위기를 표현하며 자연 속에서 피어나는 영화적 상상력을 은유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등나무 꽃을 연상시키는 보랏빛 형상과 새벽 숲의 차가운 공기를 떠올리게 하는 블루

톤이 어우러져 정적인 자연 속에서 영화의 온기가 빛나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를 통해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닌 '자연 속 영화 경험'이라는 정체성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며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포스터는 작가 기묘(Kimyo)가 참여해 특유의 섬세한 빛 표현과 색감으로 영화제의 분위기를 담아냈다.

기묘 작가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을 몽환적인 빛의 결로 표현하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올리브영과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50주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해 왔다.

또 소설 '사랑과 곁말'을 비롯한 여러 도서의 표지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확장해 오고 있다.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포스터

"나도 고고학자"... 정읍시립박물관, 어린이 국가유산 발굴체험 운영

이달부터 5월까지 총 42회 걸쳐

어린이집 등 29개 기관 참여

정읍시립박물관이 지역 어린이들이 직접 꼬마 고고학자가 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생생하게 배우는 '어린이 국가유산 발굴체험 교육'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29개 기관이 참여해 총 42회에 걸쳐 602명의 어린이가 발굴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참가 어린이들은 정읍에서 발견된 실제 유적을 바탕으로 조성된 박물관 내 어린이 발굴 체험장과 야외 전시장에서 모래 속에 숨겨진 유물을 전용 도구로 직접 찾아보게 된다. 아울러 발굴 직후 전문가의 눈높이 설명을 들으며 해당 유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유물 발견의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첫선을 보인 이후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매년 1,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꾸준히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정읍시립박물관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박물관(063-539-6792)으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립박물관이 지역 어린이들이 직접 꼬마 고고학자가 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생생하게 배우는 '어린이 국가유산 발굴체험 교육'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은 이달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오늘의(衣) 백제' 운영

익산시가 백제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여러 신들의 노후에 즐거움을 더한다.

익산시는 백제문화체험관에서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늘의(衣) 백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늘의(衣) 백제'는 고령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백제 역사와 문화를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설 이용자의 가족과 시설 종사자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정서

적 교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기관은 백제 의복 체험과 함께 △다도 체험 △옛 의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인생 네컷 체험 △아이의 활동 등 세 가지 프로그램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1일까지 백제문화체험관(063-836-5270)으로 신청하면 되고, 프로그램은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미술 교류·협력의 장 연다

익산·목포 교류전 '익산미술상생전' · 시군 미술관 협력 '계적의 변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1·2층 전시실서 선보

익산시가 지역 미술 교류와 공립미술관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17일부터 5월 3일까지 '익산·목포 지역교류전-익산미술상생전'과 '찾아가는 미술관-계적의 변주'를 개최한다.

'익산미술상생전'은 익산과 목포 지역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예술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다.

미술관 1층에서 열리는 전시는 서양화와 한국화, 공예,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80여 점이 전시돼 두 지역 작가들의 개성과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각 미술관 소장품을 공유하며, 지역 미술의 흐름을 재조명하고 공공미술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지리가 될 전망이다.

두 전시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



'계적의 변주' 포스터

요일은 휴관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 예술의전당 누리집(arts.iksan.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제시, 생활문화센터 2분기 이용자 모집

오늘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시민 개인·동아리 신청 가능

김제시는 시민 문화활동 공간인 김제생활문화센터에서 2분기 시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된 이용자는 4월부터 6월까지 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김제생활문화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17일 개관한 시민 생활문화 거점시설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다. 센터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연간 이용객이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센터는 김제문화예술회관 별관김제시 성산길 20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시설에는 밴드연습실, 댄스연습실, 개인연습실 2실, 회의실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북카페는 상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동아리, 단체이며, 동아리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김제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동아리, 단체이며, 동아리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김제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센터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 10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시설 이용은 전시관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무료이며, 하루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생활문화센터(☎ 063-540-4881~4882)로 문의하면 된다.

19일 김제 생문동 활성화 설명회

김제시는 (사)김제생활문화동호회협회(대표 윤금산)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지원사업 운영 방안과 신청 절차,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김제에는 94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1,35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금산 (사)김제생활문화동호회회장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지역의 문화 활성화와 주민 공동체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동호회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더욱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문화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마군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경유제한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26년(1638) 지은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었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광한루의 무대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마군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경유제한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26년(1638) 지은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었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광한루의 무대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